10.31

깃헙 협업툴 알려줌

Git Graph

Git 레파지토리 하나 더 만듬

브랜치를 만들어보자

레파지토리 안에 branch – MainBreanch 있음.

메인 브랜치 하나를 두고 여러가지 (기능추가, 버그 수정)을 하다 마지막에 merge로 하는 것.

작업이 끝나면 메인브렌치에 자신의 변경사항을 올림

통합브랜치 : 배포용 (작업 ㄴㄴ!)

토픽브랜치 : 기능추가, 버그수정 같은 작업을 위한 topic 브랜치

해보자

1. branch 만들기 / git branch issue1 : 아무것도 없으면 맞음

- \*이 붙어있는 branch에 현재 일하는 중임. 작업 branch를 옮기고 싶다면checkout 을 써야함. git checkout issue1

- branch 삭제하고 싶다면 –d하면 됨 git branch -d issue1

- issue 1에 작업하던 텍스트를 저장하고 애드 커밋해놓은 상태에서 main으로 바꾸면 텍스트가 보이지 않는다.

- 결국, 분기점을 나눠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각자 작업을 한다는 느낌임.

합치는 방법 : 일단 메인 브랜치로 체크아웃 + issuse1 merge -> 합치고 텍스트가 드러나게 됨.

만약, 충돌이 난다면? – 브랜치에 가지가 하나 더 생긴다.

같은 텍스트를 각각 다른 브랜치에서 수정할경우, 자료가 충돌이 난다. 그래서 충돌나는 자료를 수정해주고 main단에서 최종으로 커밋을 해줘야한다.

하지만 브랜치에 따로 저장은 되어있기는 함. (만약 브랜치 2, 3이 충돌났는데 최종을 브랜치 3으로 썼다. 그러면 push된 최종본에는 브랜치 3 버전으로 올라가지만, 브랜치 2에는 2버전이 남아있음)

다른사람이 한 브랜치를 가져오고 싶을 때.

Git pull origin (가져오고 싶은 브랜치). 결국. 충돌나지 않게 분업을 잘 해야 한다.

**리액트**

노드js?

cd.. : 뒤로가기

dir : 파일 폴더 목록 보여줌

cd 폴더명 : 해당 폴더로 들어감

드라이브명: : 해당 드라이브로 넘어감

tab키 : 폴더 자동완성

mkdir : make dir - 폴더 만들어줌

js기반, 서브 프로그래밍 느낌이 강함. Npm.start 로 시작해서 ctrl+c로 끝냄

렌더링 : 서버로부터 파일을 받아 DOM을 구현해 브라우저에 보여주는 것 (그리다)

인터렉션 : 사용자가 웹 UI를 이용하며 상호작용하며 사용하는 것

리액트의 개념.

대체 어떤 느낌이냐?

클릭을 할 떄마다 렌더링이 다시 된다.